

거침없는 안세영...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이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태국의 랏차녹 인타논을 꺾고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오픈 배드민턴 태국 랏차녹 2-0으로 꺾어 일주일 만에 다시 정상 등극

한국 여자 배드민턴 에이스 안세영(19·삼성생명)이 2주 연속 국제대회 최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광주 출신 안세영은 28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태국의 랏차녹 인타논을 2-0(21-17 22-20)으로 꺾고 우승했다. 지난 21일 2021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4)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일주일 만에 다시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1세트에서 20-14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어 낸 안세영은 상대에게 연속 3점을 내주며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네트를 살짝 넘기는 속임수 동작으로 점수를 따내 21-17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안세영은 접전이 벌어진 2세트 20-20 듀스 상황에서 압급을 조절한 공격으로 상대의 연속 범실을 유도해 22-20으로 승부를 결정했다. 안세영은 품암초 1학년 때 라켓을 처음 잡은 이후 5학년 때는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대회 여자 단식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광주체육중 3학년 때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한국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대표팀에 발탁돼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이후 2018년 아이리시 오픈에서 첫 성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2019년 뉴질랜드 오픈·캐나다 오픈·아키타 마스터스·프랑스 오픈·광주 코리아 마스터스 등 5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배드민턴협회(BWF)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대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1월 'BWF 월드 투어 파이널'에 이어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대회와 인도네시아 오픈대회까지 우승하며 물오른 기량을 선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검도팀들 '검도인의 밤' 행사서 상 휩쓸었다

서석고·조선대·채운토건 우수단체상 오길현·남태운 감독 우수지도자상

광주를 대표하는 검도팀들이 '검도인의 밤' 행사에서 상을 휩쓸었다. 대한검도회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2021년 대한검도회 표창식 및 검도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석고와 조선대, 여자실업팀 채운토건이 각각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오길현 조선대 감독, 남태운 서석고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재익 광주시검도회 이사는 공로상을 받았다. 우수단체상과 우수지도자상은 올 한해 주목할만한 성적을 낸 팀과 감독에게 주어진다. 조선대는 지난 10월 충남청양군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8·15 광복절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제50회 전국학생검도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지난 10월 제102회 전국체전 검도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5월 경남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검도 회장기 전국 중·고검도대회 고등부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해동고(전남)를 5-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여자 실업팀 채운토건은 최근 2021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또 지난 6월에 열린 제6회 회장배 전국실업검도선수권 대회 개인전 1, 2,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7일 열린 2021년 검도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광주지역 수상자들과 검도협회 관계자. 오길현(왼쪽부터) 조선대 감독, 정동진 서석중학교 교감, 최성운 광주검도회 수석부회장, 남태운 서석고 감독, 전지운 채운토건 선수. <광주시 검도회 제공>



제59회 대통령기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선전한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대통령기 3위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제59회 대통령기 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3위에 올랐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최근 경기도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일반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김만열(순천시청)·임유림(경남체육회)은 혼합복식 준우승, 이하늘(순천시청)·김만열(순천시청)은 개인복식 3위에 랭크됐다.

추문수(순천시청)는 단식 3위로 입상했다. 순천시청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대구 달성군청에 1-2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혼합복식 결승전에서는 김현수(달성군청)·김연화(안성시청)에게 1-5로 패했다. 이하늘·김만열은 개인복식에서 이현수·박규철(달성군청)에게 4-5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단식에서는 추문수가 진인대(순창군청)에게 3-4로 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제27회 회장배 전국대학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한 호남대 탁구부. <호남대 제공>

호남대 탁구 전국대회 남녀 단체전 3위

박준현·권도영 복식 3위 호남대학교 남·여 탁구부(감독·지도교수 박인혜)가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27회 회장배 전국대학탁구선수권 대회' 남·여자부 단체전에서 각각 3위와 남자 개인 복식 3위에 올랐다. 박준현·권도영(이상 스포츠레저학과 2년)은 남자 개인 복식에서 참가해 3위를 차지했다. 박준현·권도영, 정건우·설현철(이상 스포츠레저학과 1년), 최지성(전기공학 1년)은 남자 단체전 3위에 랭크됐다. 여자단체전도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박관송, 김단희(이상 스포츠레저학과 3년), 나수진(2년), 이예진, 기다빈(이상 1년)은 3위를 견인했다. 호남대 탁구부는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대학탁구팀으로, 매년 전국체전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쇼트트랙 남녀 1500m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3장씩 확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이유빈(연세대)이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이유빈은 2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21-20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93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는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우승, 월드컵 3차 대회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함께 출전한 서휘민(고려대)은 5위, 최민정(성남시청)은 6위를 기록했다. 남자 1500m에서는 박장혁(스포츠포토)이 2분20초6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 함께 진출한 박윤기(고양시청)는 8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결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녀 쇼트트랙 1500m 출전권을 각각 3장씩 획득했다. 올림픽 쇼트트랙은 국가별로 개인 종목에 최대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네 차례 월드컵 성적 가운데 선수별로 가장 좋은 3개의 성적을 더해 높은 순서대로 남녀 500m와 1,000m는 총 32장, 1,500m는 36장의 출전권을 국가별로 배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장르만 로맨스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유채이탈자
- 2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 3관 유채이탈자, 뚝, 장르만 로맨스, 디어 에반 핸슨
-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 5관 장르만 로맨스
- 6관 유채이탈자
- 9관 유채이탈자, 이터널스, 프렌치 디스패치
- 7관 씨네케틀 엔칸토: 마법의 세계, 뚝, 강릉, 메이드인아타리, 벵츠뱃데어비커, 지시바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시대
- 8관 씨네케틀 연애 빠진 로맨스, 장르만 로맨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특별기획공연 **바리톤 김기훈 독창회**

일시 : 2021.12.13.(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